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23.(수) 11:00 11. 24.(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23.(수) 09:00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책임자 과 장 오미란 (044-201-1565)	담당자 사무관 우미옥 (044-201-1566)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여성농업인 24명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한농연회관에서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1점(농식품부장관상, 상금 200만 원), 우수상 5점(농협중앙회 회장상,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14점(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상, 상금 각 50만 원), 특별상 4점(한국농어민신문 사장상, 상금 각 25만 원) 등 총 24점을 시상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번째를 맞이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겪은 일상 또는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이며, 응모한 작품은 시인과 소설가 등 전문심사단이 ▲체험의 현장성,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대상 수상작은 장희숙 씨(53, 경기 이천)의 ‘다시 봉지를 씌우다’로, 이천 장호원에 정착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를 극복하고 과수원을 곳곳하게 지킨 진정한 농사꾼의 이야기로 복숭아 농사에 대한 깊은 애정은 물론 시련을 극복한 진한 가족애를 의연하고 담담하게 담았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농촌 여성의 겸업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에 비해 평가가 낮은 농업소득을 대조적으로 잘 묘사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김영미 씨(56, 경북 경주)의 ‘하루 쌀이 반 가마’ 등 이번 출품작들을 통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 중인 여성농업인의 진솔한 삶의 기록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수필가 반숙자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농촌 토박이의 글보다 귀농귀촌 여성의 글이 주를 이루었으며, 농촌 살아보기가 유행하고 도시와 농촌의 이중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사회의 추세가 잘 반영된 글이 많았다. 여성농업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애타는 글을 보면서 이제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새 주역은 여성농업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평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여성농업인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농업인 이야기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하여 농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역대 작품집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 (mafra.go.kr/wom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요
- 2.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 3.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사진

붙임 1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요

□ 공모전 개요

- **(목적)** 여성농업인 문예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여성농업인 스스로 직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전파
- **(명칭)**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주제)** ①여성농업인의 농촌에서의 일상과 역경 극복 사례, ②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③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 **(자격)**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 **(주최/주관)** 농식품부 / 한국농어민신문, 농협중앙회

□ 공모방법

- **(접수)** 2022년 6월 1일 ~ 8월 31일 (수상작 발표 9월, 시상식 11월)
- **(형식)** 신명조, 글씨크기 10 기준 A4 3매 이상 6매 이하, 단 다문화 여성은 2매 이상(200자 원고지 기준 30~60매)
- **(응모)** 이메일 접수(sugi@agrinet.co.kr)

□ 시상명세

- 대상 : 1명, 200만 원(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우수상 : 5명, 각 100만 원(농협중앙회 회장상)
- 장려상 : 14명, 각 50만 원(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상)
- 특별상 : 4명, 각 25만 원(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상)

붙임 2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구분	작품명	수상자
대상(1)	다시 봉지를 씌우다	장희숙(경기 이천)
우수상(5)	작은 잣 골에서 부르는 노래	김경자(강원 영월)
	하루 쌀이 반 가마	김영미(경북 경주)
	제주도에 사니깐 매일이 휴가잖아	김예지(제주 제주시)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이다	방금숙(제주 제주시)
	오늘도, 마을마음	이겨레(강원 원주)
장려상(14)	귀농 새내기에서 강소농을 꿈꾸며	강보민(경북 김천)
	삶의 향기	김미자(경기 여주)
	다시 찾은 꿈, 도전하는 여성 농업인	김지원(전북 익산)
	사과꽃 필 무렵	박종임(충북 괴산)
	열심히 살았고 올바르게 살고 있고 곧잘 살라네	유명숙(경남 진주)
	쌀귀리 농사를 짓다보면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유순복(경기 연천)
	헛고생	임병숙(강원 원주)
	나는 영농코디네이터 장광숙	장광숙(강원 횡성)
	귀농, 희망을 전해준 일곱 빛깔 무지개	장성희(경북 포항)
	빼꾸기 울던 시절	정덕화(경북 포항)
	난 할 수 있다	조연희(제주 제주시)
	고생 끝에 얻은 행복	최명자(전북 완주)
	이 여자가 요즘 사는 법-순자씨의 슬기로운 농촌생활	최순자(경남 통영)
	전생애 농부였을 거야	추서연(경북 성주)
특별상(4)	양산을 쓰고 가위로	김순영(강원 원주)
	새 출발 60	송인숙(강원 강릉)
	넘어지고 실패하며 얻은 값진 보물	유희중(경남 김해)
	코로나19 투병기, 격리기, 그리고 시골 살기	조희주(충남 홍성)

